

초등, 중등, 고등학생 아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

- 수용성과 거부성을 중심으로 -

이 영 미(천안대학교 전임강사)

아버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재가 변화되고 있고 가족구조의 변화 및 취업모의 증가로 점차 아버지가 자녀양육과 같은 가정생활에 더 참여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와 여가를 함께 하고 자녀의 생활지도에 참여하는 등 자녀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취업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관심은 취업모와 그 가정을 위해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아버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제기될 뿐 아니라 아버지 역할의 독자적 특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아버지 본인이 지각하는 양육역할보다는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가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질적으로 다르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버지와 아들의 2인 관계에 주목한 것은 더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단, 연구에서 분석 및 해석과 관련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방법에서 연구대상인 533명의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고 기록되어있는데 <표3>과 <표5>의 분석결과를 보면 연구대상의 수가 더 많습니다.

둘째 아들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버지의 수용성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표의 경우 출생순위 집단은 4집단인데 자유도가 4로 제시되었고 MS값은 SS/4로 계산되었습니다.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다른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 관련 변인의 하위범주별 표본크기가 격차가 크고 일부 범주는 사례수가 1명에서 3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에서 제시된 평균을 토대로 집단간 변량과 집단내 변량을 비교한 경우 그 결과를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출생순위 집단, 아버지의 연령집단, 아버지의 학력집단간 차이에 관한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각 집단간에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하면 사후검증 결과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즉, 아버지의 연령대가 젊거나 높을 때 아버지의 수용성이 높다고 밝혔는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젊은 아버지 집단의 표본크기가 작고 아버지 연령 집단간 평균

의 차이에 관한 사후검증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연령집단에서 아버지의 수용성에 대한 지각이 의미 있게 다른지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생순위 집단이나 아버지의 학력집단간 차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단간 평균차가 크지 않은 듯한데 실제 어느 집단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넷째 결과에 대한 <논의> 중에서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에 대한 지각이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생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발달단계가 높을수록 지각하는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이 모두 낮은 것은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아들이 갖는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 또는 독립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표3>을 보면 초등학생일수록 아버지의 수용성을 더 낮게 지각하며 거부성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청소년기 자녀가 학령기 아동에 비해 아버지와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지향한다면 아버지와 상호작용도 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젊은 아버지일수록 자녀양육에 더 참여하고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 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연령에 따른 자녀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결과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 유형이 다를 수 있고 아버지의 실제 참여와 자녀가 지각하는 정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후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 이 연구 결과에서 밝혔듯이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아버지의 수용성과 거부성을 동시에 더 높게 지각한다면 그 이유를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의 연구에서 아버지와 아들간의 상호작용 시간이나 상호작용의 내용과 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결과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들이 기대하는 아버지의 양육역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교육을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